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

수험번호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2.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3. 각 문제별로 정해진 분량의 글을 쓰고, 연습은 문제지를 이용할 것 4. 필기구는 우리대학에서 배부한 볼펜을 사용할 것(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성명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얗게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충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의 물을 거칠게 쏟아 버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돗가에 내동댕이쳤다. 나는 뒷덜미를 잡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슬픔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베이비로션을 꺼냈다. 그러고는 붉은 실핏줄이 보일 만큼 껍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 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김재영, 『코끼리』 부분

<나>
 서울은 나에게 쌀을 발음해 보세요, 하고 까르르 웃는다
 또 살을 발음해 보세요, 하고 까르르까르르 웃는다
 나에게에는 쌀이 살이고 살이 쌀인데 서울은 웃는다
 쌀이 열리는 쌀 나무가 있는 줄만 알고 자란 그 서울이
 농사짓는 일을 하늘의 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농사가
 쌀 한 톨 제 살점같이 귀중히 여겨 온 줄 알지 못하고
 제 몸의 살이 그 쌀로 만들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쌀과 살이 동음동의어이라는 비밀 까마득히 모른 채
 서울은 웃는다

정일근, 「쌀」, 『오른손잡이의 슬픔』에서

<다>
 이불훔청을 께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것이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갇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었다

박노해, 「이불을 께매면서」 부분

<라>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 부분

<마>
 소크라테스는 ‘비판적 질문하기’라는 자신의 이상에 충실했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소크라테스의 모범은 서구 전통에서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 온 교양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철학과 여타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주장을 펴는 습관을 길러 줄 것이며, 그렇게 길러진 능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소중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식 사고는 어떠한 민주주의에서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종, 계급,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그것은 특히 중요하다. 자신의 논리에 책임을 지고 이성(理性)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자들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갈수록 인종과 종교적 갈등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차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마사 누스바움,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 부분

[문제 1] <가>, <나>,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서술한 후, 그 공통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방향을 <라>,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 정해진 수업을 듣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 등은 한국 사회 구조의 한 형태인 학교 구조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행위이다. 이렇게 개인의 행위가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서로 마주 서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인사를 하고, 타이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팔과 팔꿈치를 몸에 붙인 합장 자세에서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이렇게 사회마다 인사 방식이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구조만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기도 한다. 과거 많은 사회에서는 일부 특권 계층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교육 및 의무교육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대중 교육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사회 구조가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같은 제목의 연작 소설 중 하나이다. 1부에는 '영수'가 서술자로 등장한다. 2부와 3부에서는 각각 난쟁이의 자식들인 '영호'와 '영희'가 서술자로 등장한다. 작가가 그린 "키 백십칠 센티미터, 몸무게는 삼십이 킬로그램"의 난쟁이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1970년대 경제의 생산과 소비, 분배 구조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계층을 표상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이 인물이 사는 곳은 '낙원구 행복동'인데,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들의 고통은 더욱 도드라진다. 이 작품에서는 세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난쟁이'와 그의 가족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만다. 분리된 사회의 벽에 막혀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난쟁이는 끝내 인간의 땅에서 희망의 길을 찾지 못한다. 난쟁이는 종이비행기를 접어 달나라로 쏘아 올리며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은 현실에 절망한다. 이 소설은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파멸을 통해, 1970년대 산업화 사회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소외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고발하며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다>

민주 사회의 시민은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치 공동체의 법이나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시민 불복종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는 롤스의 입장을 수용하며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는 전제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라>

1920년대에 접어들며 등장한 신여성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조혼이나 축첩, 강제 결혼 등을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겼으

며, 여성들의 교육·경제권뿐만 아니라 자유연애와 자유 결혼도 주장하였다. 신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한 사회 운동도 주도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여성 교육과 계몽을 중시하는 단체들이 설립되었는데 여성 교육을 강조한 독립운동가로 덕성여자대학교의 전신인 근화 여학교를 설립한 차미리사는 "조선 여자에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직업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인 해방이니 가정 개량이니 하지만은 다 제 손으로 제 밥을 찾기 전에는 해결이 아니 될 것이다."(동아일보, 1926. 1. 3.)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조선의 신분 구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정착되었다.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 관리를 아울러 부르던 명칭이었으나, 점차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 포함한 사족(士族)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양반은 각종 특권을 보장받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향리, 서리 등 하급관리와 서열을 중인으로 격하하였다.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잡과를 통해 선발된 기술관을 가리킨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하고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상민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 등을 말한다. 법적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과거 응시는 쉽지 않았다.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다. 노비 신분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는데 부모 중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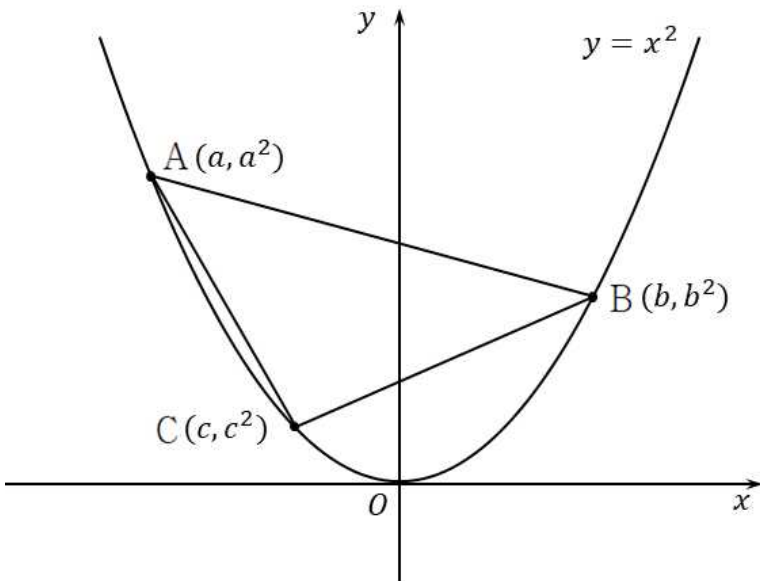
[문제 2] <가>의 내용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요약하고 해당하는 사례를 <나>, <다>, <라>, <마>에서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십시오. (500자 내외) [100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자연계열(수리논술)]

수험번호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험번호, 성명 등 자기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내지 말 것 2. 연습은 문제지를 이용할 것 3. 필기구는 우리대학에서 배부한 볼펜을 사용할 것(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성명		

[문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의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 = x^2$ 위에 세 점 $A(a, a^2)$, $B(b, b^2)$, $C(c, c^2)$ 이 있다. (단, $a < c < b$ 이다.)



【문제 1-1】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C의 x 좌표 c 를 a, b 로 나타내시오. [20점]

【문제 1-2】

[문제 1-1]에서 구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40점]

【문제 1-3】

선분 AB와 곡선 $y = x^2$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1 이라 하자. S_1 을 정적분을 활용하여 구하시오. [문제 1-2]에서 구한 삼각형 ABC의 넓이를 S_2 라고 할 때, $\frac{S_1}{S_2}$ 이 a, b 와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시오. [40점]

[문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의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 (1)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l 이라 한다.
- (2)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임의추출 할 때, 추출된 공에 적힌 수를 m 이라 한다. (단, 반복 시행 시 복원추출한다.)
- (3) (1), (2)에서 추출된 순서쌍 (l, m) 을 이용하여 등비수열 $a_n = k\left(\frac{m}{l}\right)^{n-1}$ ($n = 1, 2, 3, \dots$)을 만든다. (단, $k > 0$ 인 상수)
- (4) (3)에서 만들어진 등비수열 $\{a_n\}$ 이 $\sum_{i=1}^{\infty} a_i$ 가 수렴하고,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geq \sum_{i=n+1}^{\infty} a_i$ 를 만족하면 성공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한다.
- (5) (3)을 4회 반복 시행하면서 (4)에서 설명한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단, 2회 성공하면 시행을 멈춘다.

【문제 2-1】

(3)처럼 추출된 순서쌍 (l, m) 으로 만든 등비수열 $\{a_n\}$ 이 (4)에서 설명한 성공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30점]

【문제 2-2】

(5)에서 설명한 반복 시행에서 실패한 시행의 횟수를 확률변수 X 라 하자. [문제 2-1]의 결과를 이용하여 X 의 확률분포를 구하시오. [40점]

【문제 2-3】

(5)에서 설명한 반복 시행에서 시행의 횟수를 확률변수 Y 라 하자. [문제 2-2]의 결과를 이용하여 Y 의 확률분포를 구하시오. 또, 반복 시행을 4회까지 했을 때, 성공이 한 번일 확률을 X 와 Y 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30점]